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의 현황과 추진방안

- 심우장을 중심으로 -

김지은*

• 목 차 •

- I. 서론
- II. 만해 한용운과 심우장
- III.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 IV.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추진방안
- V. 결론

한글요약

지방자치체가 1990년대 시작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역사적 인물과 역사·문화자원을 발굴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통해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성북구 역시 지역의 주요 역사·문화 콘텐츠인 만해 한용운(萬海 韓龍雲, 1879~1944)과 심우장 콘텐츠를 활용하여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으로서 축제, 문학축전, 기념식, 탐방, 문화유산 활용 사업 등을 추진하여 성북의 지역정체성 확립과 주민의 자부심 고양, 지역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사업 추진의 방향성 설정 필요, 타 자치단체와의 사업 중복문제, 성북 고유의 콘텐츠 부재, 심우장 주변 지역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한용운과 심우장을 중심으로 한 선양사업을 제검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 논고에서는 심우장을 한용운의 사상과 정신이 집약된 한용운 정신의 실천 공간으로서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용운의 사상을 계승하고 확산시키는 공간으로 선양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였다.

성북구의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과 타 자치단체의 사업 추진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의 방안을 중장기 계획수립, 추진체계 구성, 콘텐츠 발굴 및 인력양성, 문화콘텐츠 연계 사업 추진 등으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만해 한용운 심우장이 한용운의 사상을 계·실천하는 공간으로 기능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만해, 한용운, 심우장, 선양사업, 성북구, 지방자치단체, 문화콘텐츠

* 성북구청 학예사.

© 『大覺思想』 제41집 (2024년 6월), pp.243-273.

I. 서론

지방자치체가 1990년대 시작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역사적 인물과 역사문화자원을 발굴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정부의 ‘문화산업진흥기본법(1999년)’, ‘콘텐츠산업진흥법(2010년)’, ‘지역문화진흥법(2014년)’ 등의 제정을 통해 제도적인 틀이 마련됨에 따라,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문화 콘텐츠화¹⁾ 하는 시도는 더욱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2023년)」이 최근 시행되어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 등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시기가 도래하였다. 문화콘텐츠 개발의 핵심 가치는 경제와 문화의 부흥에 있으며²⁾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사업은 지역정체성을 확립하고 도시 이미지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으므로³⁾ 이를 계기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로 하는 역사·문화콘텐츠 발굴과 활용은 더욱 활기를 띠 것으로 예상된다.

성북구 역시 지역의 주요 역사·문화콘텐츠인 만해 한용운(萬海 韓

龍雲, 1879~1944)과 만해 한용운 심우장(이하 ‘심우장’) 콘텐츠를 활용하여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으로서 축제, 문학축전, 기념식, 탐방, 문화유산 활용 사업 등을 추진하여 성북의 지역정체성 확립과 주민의 자부심 고양, 지역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사업 추진의 방향성 설정 필요, 타 자치단체와의 사업 중복문제, 성북 고유의 콘텐츠 부재 등으로 인하여 선양사업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동안 만해 한용운은 독립운동, 문학, 불교 등의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근래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심우장을 중심으로 한 한용운의 활동⁴⁾이나 이 시기 발표된 문학작품의 의의를 밝히는 연구⁵⁾가 발표되고 있으며, 심우장의 의의에 대한 연구⁶⁾도 다수 발표되고 있다. 이는 심우장의 역사성과 가치를 밝힌 연구들으로써 앞으로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을 추진하는 데 참고해야 할 주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이 유의미한 연구 결과들을 현장에 실제 적용한 사례 연구는 부족하다.⁷⁾

이를 위해 이 논고에서는 만해 한용운 심우장을 중심으로 만해 한용

4) 배경식, 「1930년대의 문화지형과 한용운의 삶」, 『불교문예연구』 3,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불교문화예술연구소, 2014.

김광식, 「심우장의 어제와 오늘」, 『전자불전』 제21집, 2019.

5) 이혜숙, 「한용운 소설의 인물과 근대사상 형상화 양상- 장편 『흑풍(黑風)』과 『박명(薄命)』을 중심으로」, 『돈암어문학』 제26집, 2013.

백익기, 「일제 강점기 후반기 문학계 동향과 후반기 만해 문학사상」, 『선문회연구』 17, 2014.

장영우, 「심우장 시절의 만해 문학」, 『한국문학연구』 47, 2014.

6) 백익기, 「심우장尋牛莊의 정체성 확립과 보존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 『東方論集』 제2집, 2008.

김익균, 「만해 한용운이라는 기념비」, 『大覺思想』 제25집, 2014.

전한성, 「문화적 기억의 공간과 장소, 심우장尋牛莊」, 『어문논집』 88, 2019.

최중진, 「萬海 韓龍雲의 晩年과 尋牛莊」, 『선문회연구』 32집, 2022.

7) 최근 만해 선양 콘텐츠를 공간, 출판, 영상 콘텐츠 분야로 나누어 활용방안을 제시한 논문이 발표되었으나(이창경, 「만해 선양 문화콘텐츠의 활용방안」, 『출판잡지연구』 29, 2021), 이 논고에서는 자치단체를 주체로 한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추진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1) ‘콘텐츠’는 ‘부호, 문자, 도형, 색채, 음성, 음향, 이미지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3호)로 규정되며, “문화콘텐츠”란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콘텐츠”(『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4호)를 말한다. 이 때문에 문화콘텐츠는 주로 디지털콘텐츠 분야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져오는 개념으로 인식되지만, 여기에서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지역문화를 소재로 디지털과 아날로그 영역에서 다양하게 만들어지는 콘텐츠’라는 ‘지방자치단체 문화콘텐츠’의 개념으로 이해하고자 한다.(김진형, 「지방자치단체 문화콘텐츠의 개념과 OSMU 가치실현 방안」, 『비교민족학』 제44집, 2011, pp.276-284.)

2) 김진형, 위의 논문, p.276.

3) 이상현, 이종오, 「지역문화콘텐츠로서 역사문화자원의 활용사례 연구-군산 근대문화유산거리와 전주한옥마을을 중심으로-」,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학술대회』, 2018, p.63.

운 선양사업의 현황과 추진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선양'은 그 인물의 명성이나 권위를 확산시킨다는 의미가 있으므로, 만해 한용운의 정신을 계승하고 가치를 확산한다는 의미로 한용운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콘텐츠 활용사업을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그중 심우장은 한용운 정신의 계승·실천 공간으로서 의의를 지니므로 성북구의 심우장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성북구와 타 자치단체의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현황을 분석한 후, 성북구 선양사업의 문제점을 도출하도록 하겠다. 이를 기반으로 심우장의 가치를 선양할 수 있는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의 추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만해 한용운과 심우장

만해 한용운은 1933년 벽산스님이 집터를 기증하고 박광, 방응모 등 지인들의 도움으로 성북동 깊은 골짜기에 자리 잡고 방 두 칸짜리 집을 지어 '심우장(尋牛莊)'으로 이름 지었다. '심우(尋牛)'는 수행자가 수행을 통해 본성을 깨닫는 10단계의 과정을 잃어버린 소를 찾는 일에 비유한 '심우도(尋牛圖)'에서 유래한 것이었다. 한용운은 성북동 깊은 산골짜기에 기거하며 '소', 즉 본성을 찾기 위한 '심우' 단계로 돌아와 조국과 민족을 생각하였다.

심우장에 기거하기 전 한용운은 혼신의 힘을 쏟았던 『불교』지가 제정난으로 발간이 중단되었고 한용운이 당수로 있던 불교비밀결사 만당(卍黨) 조직이 와해되는 등 불교개혁운동의 좌절과 청년들의 현실 타협에 대한 상실감에 차 있던 시기였다.⁸⁾ 또한 한용운이 심우장에서 기거하던 1930년대 중반 이후는 일본 제국주의의 극성기로 독립운동에

대한 강한 탄압이 이루어지던 시기였다. 최린, 최남선 등이 친일로 변절한 것도 이때의 일이었다.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을 위한 방안 모색에 앞서, 선양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하는지 먼저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역사 인물을 문화콘텐츠화 할 때는 그의 삶에 내재한 다양성과 보편성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삶과 정신에서 지금의 가치를 도출하여야 더욱 의의를 가진다.⁹⁾

당호 심우장의 '심우(尋牛)'는 본성을 찾기 위한 '심우도(尋牛圖)'의 열 가지 단계 중 첫 번째 단계로, 한용운은 거처 공간을 심우장으로 이름 붙인 이유를 '초심구도의 뜻을 표하기 위함으로 밝힌 바 있다.¹⁰⁾ 초심으로 돌아간 한용운이 심우장에서 추구하였던 것은 무엇이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할까.

한용운이 거주했던 심우장은 민족정신의 공간이었다. 일출 김동삼(一松 金東三, 1878~1937)이 경성형무소에서 사망하였을 때 심우장에서 장례를 치렀고 변절자들과 교류를 끊는 등 서릿발 같은 1930년대 일제 강점기 속에서도 변절하지 않고 독립을 위한 민족정신을 잃지 않고 지조를 지켰다.¹¹⁾

또한 한용운은 심우장에서 거주하며 「심우장 산시」를 집필하였고, 「혹풍」, 「박명」 등의 소설을 발표하였다. 소설은 그간 한용운이 발표했던 「님의 침묵」이나 산문들과는 달리 새로운 형태의 집필 형태였다. 한용운 스스로도 "소설 쓸 소질도 없고 소설가가 되고자 애쓰는 사람이 아

9) 강민희, 「장소성 형성을 위한 역사인물의 활용방안」, 『동아인문학』 제46집, 2019, pp.50-51.

10) “筆者는 城北洞의 一隅에 小居를 卜하고 尋牛莊이라 命名하였다. … 중략 … 筆者는 佛敎學徒의 一人인 故로 初心求道의 뜻을 表하기 爲하여 所居處를 尋牛莊이라 命名하였으나 實로 그것도 猥褻한 일이다.”(牧夫, 『尋牛莊說』, 『佛敎』 新 제4집, 1937.6.1.)

11) 김광식, 앞의 논문, pp.19-25.

8) 배경식, 앞의 논문, pp.222-228.

나라 문장이 유창하지도 않고 묘사가 훌륭¹²⁾하지도 않다고 했지만, 한용운은 소설 「흑풍」, 「박명」, 「후회」를 통해 일제에 대한 저항, 의식과 독립사상을 고취하고자 하였으며 「박명」에서는 중생구제의 사상도 함께 보여주었다.¹³⁾ 한용운의 소설은 그간 「조선독립의 서」와 「조선불교유신론」¹⁴⁾, 『님의 침묵』을 통해 독립, 자유, 평화를 지향¹⁵⁾했던 사상 세계가 단절되지 않고 이어지는 장치였던 것이다.

특히 심우장은 대중과 함께하려 했던 한용운의 사상의 실천의 공간이기도 하였다. 이 시기의 소설들은 대중계몽과 교화를 위해 집필하였다.¹⁶⁾ 한용운은 『심우장설(尋牛莊說)』에서 성복동에 거처를 마련하고 당호를 ‘심우장(尋牛莊)’이라 붙인 사연을 설명하면서, 자신이 새로 쓴 ‘십우도송(十牛圖頌)’의 마지막 단계를 ‘입천수수(入塵垂手)’로서 중생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 중생을 돕고자 하였다.¹⁷⁾ 이는 『님의 침묵』의 「군말」에서 어린 양(중생)에게 길을 알려주고자 시를 썼던 것처럼¹⁸⁾ 중생(대중)과 함께하고자 했던 한용운의 사상이기도 하다. 또한 심우장은 당시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열린 공간으로 한용운은 민족의 지도자로서 성복동 깊은 골짜기까지 찾아온 항일사상가, 불교인, 문학가, 학생 등 많은 방문객의 고민을 들어주었던 대중과의 소통 공간이었다.¹⁹⁾

위와 같이 심우장에서 한용운의 삶은 그가 지금껏 주장하고 걸었던 그 행보를 더욱 분명하게 가는 것이었다.²⁰⁾ 심우장을 중심으로 한 만

해 한용운 선양사업을 위해서는 심우장을 독립을 위한 민족정신을 지킨 공간이자 자유, 평화, 평등 등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사상을 이야기하는 공간, 그 사상을 대중과 함께하고자 본인의 신념을 지키며 실천했던 공간으로서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용운의 사상을 계승하고 확산시키는 공간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심우장을 민족자존의 공간이자 그간 일관되게 주장했던 한용운의 독립·자유·평화 사상과 불교인들이 단절되지 않고 이어져 온 공간임을 알리고, 특히, 대중과 소통하고자 했던 한용운의 사상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대중(주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다음 장에서는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을 추진하는 성복구와 타 자치단체들의 현황을 분석한 후, 성복구의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의 문제점을 도출하도록 하겠다.

Ⅲ.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현황과 문제점

만해 한용운은 3·1운동시 민족대표 33인으로 참여한 독립운동가이자, 『님의 침묵』을 쓴 시인이며, 『조선불교유신론』을 통해 불교개혁을 외친 승려이다. 또한 국내, 일본, 만주 등 여러 지역을 다니며 활동하였기 때문에 국내에도 그와 인연이 닿은 지역이 많이 남아 있다. 자치단체에서는 역사 인물 활용시 주로 출생, 생전 시 활동, 사망과 관련된 요소에 기초하여 콘텐츠화하며, 그 인물의 위상이 클수록 여러 자치단체에서 하나의 인물을 두고 콘텐츠 활용사업을 추진하기도 한다.²¹⁾ 만해 한용운 역시 출생, 출가, 입적 등 주요 행적이 남아 있는 자치단체들이 한용운을 콘텐츠로 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20) 김광식, 앞의 논문, p.16.

21) 이영준, 이진영, 「역사문화콘텐츠로서 세종대왕을 활용한 지역경제성 확립 : 경기도 여주시를 중심으로」, 『글로벌문화콘텐츠』 제51호, 2022, p.24.

12) 한용운, 「作者的 말」, 『조선일보』 1935.4.5.

13) 백원기, 앞의 논문, 2014, p.209.

14) 김순석, 「세계 평화를 지향한 한용운의 독립운동-『조선불교유신론』과 「조선독립의 서」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제96호, 2022, pp.375-376.

15) 백원기, 「만해 선사의 시문학과 삶의 지향점」, 『제5회 심우장 만해통일문학 축전 자료집』, 2019, pp.33-34.

16) 장영우, 앞의 논문, p.171.

17) 전보삼, 「만해와 무산의 「십우도」 비교연구」, 『시와세계』 51, 2015, p.80.

18) 백원기, 앞의 논문, 2014, p.191.

19) 김광식, 앞의 논문, p.26.

있다.

먼저 성북구에서 추진 중인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과 타 자치단체들의 사업현황을 살펴본 후, 성북구 선양사업의 문제점을 도출하겠다.

심우장은 만해 한용운 입적 후 따님 한영숙이 관리하다 만해사상연구회에서 1981년부터 만해기념관을 건립하여 만해 사상 보급 운동을 펼쳐나갔다.²²⁾ 성북구에서는 1999년 따님으로부터 심우장과 토지·건물을 매입하여 복원공사를 진행하였고 이때부터 성북구에서 심우장을 보존·관리하였다.²³⁾ 2009년에는 문화재정밀실측조사를 통하여 『심우장 실측조사보고서』를 발행하였고, 2012년에는 심우장 올라가는 입구의 만해 산책공원에 이야기와 휴식이 있는 아트벤치를 제작하여 심우장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관광명소 및 휴식 공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심우장 정면 일부를 가리고 있던 벽돌 건물을 철거하고, 2016년 현재의 관리동을 준공하여 심우장 관리·운영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1984년 서울시 기념물로 지정되었던 심우장은 3·1운동 100주년이 되던 2019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심우장은 독립운동 관련 활동과 애국지사들과의 교류 등에 대한 흔적이 남아 있다는 측면에서 사적으로서의 가치가 있으며²⁴⁾ 만해 한용운의 독립의지를 엿볼 수 있는 공간으로, 원형이 비교적 잘 보존됐다는 점에서 문화유산으로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²⁵⁾

성북구는 심우장의 정비와 함께 2015년부터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으로 명명하여 관련 사업들을 진행해 오고 있다. 만해 한용운이 심우장에서 입적한 날짜인 6월 29일에 맞추어 매년 성북문화원과 정법사, 선

학원 공동주관으로 함께 만해 추모 다례제를 진행하고 있다.²⁶⁾

또한 만해 한용운의 출생일인 8월 29일에 맞추어 2015년부터 매년 만해사상실천연합회와 함께 ‘만해평화문학축전’을 심우장에서 진행하고 있다. 만해 탄생 기념식뿐만 아니라 만해 한용운의 시낭송, 기념강연 및 토론회 등을 통해 만해 한용운의 자유, 평화사상을 알리고 있다.²⁷⁾

성북구는 연중 만해 한용운의 문학사상과 독립정신을 심우장에서 배울 수 있는 문화유산 활용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서 ‘생생문화재 활용사업’, ‘고택·종갓집 활용사업’을 통하여 성인·가족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2020년에 진행한 ‘생생문화재 활용사업’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심심 Atelier 심심풀이전(영상기획전)’을 통해 한용운과 심우장을 영상으로 소개하고, ‘심우장 History임을 그리다’를 통해 ‘심우장 풍경 중 만들기’ 체험키트를 비대면 체험 형식으로 진행하였으며,²⁸⁾ 2022~2023년 ‘고택종갓집 활용사업’은 ‘성북동 심우장 고택문학전시관’으로 성북동 일대 근대가옥 답사, 한용운 문학작품 향유, 만해 문학 강연 등 근대가옥으로서의 심우장 콘텐츠 활용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²⁹⁾

또한, 성북구에서는 1937년 일송 김동삼 장군이 경성형무소에서 옥사하였으나 아무도 시신을 수습하지 않자 한용운이 직접 심우장으로

26) 「성북구, 만해 한용운 79주기 추모 다례제 개최」, 『테일리한국』 2023.06.28. 심우장에서의 만해 추모 다례제는 2008년~2012년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2013년 성북문화원과 흥천사, 2014년부터는 성북문화원과 정법사, 선학원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진행하고 있다.

27) 「만해 스님 민족자주·생명평화 기리며 ‘대한독립’ 외치다」, 『법보신문』 2023.08.29.일자.

28) 「영상으로 만나는 만해·심우장」, 『내일신문』 2020.10.19.

29) 「성북구, '2022 고택종갓집 활용사업 : 성북동 심우장 고택문학체험관' 운영」, 『시민일보』 2022.3.16.

22) 「북향집 심우장에 만해기념관 문을 열다」, 『남한산성 만해기념관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jbs4106/221789994363>)

23) 서울특별시 성북구, 『만해 한용운 심우장 사적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 2018.

24) 문화재청 고시 제2019-46호.

25) 「만해 한용운 살던 '심우장' 사적 지정」, 『kbs뉴스』 2019.4.8.

모셔와 장례를 치른 에피소드를 뮤지컬 ‘심우’로 제작하여 매년 심우장에서 공연하고 있다.³⁰⁾ 성북문화원과 극단 더늠이 2014년 처음 제작하여 국가보훈처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매년 공연하고 있다. 실제 심우장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성북문화원에서 고증하고 성북 지역의 예술단체가 연출하는 협업을 통해 개발하여 심우장의 콘텐츠를 활용한 대표적인 공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외에 성북시티투어, 성북역사문화탐방 등의 탐방 프로그램, 성북동 문화제야행을 통한 야간 개방 등 주변의 문화유산과 연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표 1> 성북구의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추진현황

관련 콘텐츠	세 부 내 용	
	추진사업(주관기관)	주요키워드
(1933) 심우장 건립 (1937) 일송 김동삼의 유해를 심우장으로 모셔 장례지냄. (1944) 심우장에서 입적	추모제 · 2008년~현재. 추모 다례제(6.29) (선학원, 장법사, 성북문화원)	입적
	축제·행사 · 2014년~현재. 추모 예술제(6.29.) : 뮤지컬 ‘심우’ 공연, 전통문화공연 등 (성북문화원) · 2015년~현재. 만해평화문학축전(8.29) : 탄생 기념식, 시낭송, 학술세미나, 강연 등 (만해사상실천연합) · 2022년~ ‘성북동 야행’ 연계 독립운동 콘텐츠 활용 체험 프로그램 (한성대)	행일, 문학, 평화사상
	문화유산 활용 · 2020년 ‘생생문화재 활용사업’ : 영상기획전, 비대면 체험 프로그램 (코리아헤리티지센터) · 2022년~현재. ‘고택종가집 활용사업’ : 심우장 및 근대가옥 답사, 문학체험·강연(코리아헤리티지센터(2022~2023), 문화위드유브(2024))	문학, 행일, 문화유산

다음으로,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을 진행 중인 타 자치단체들의 현황을 살펴보겠다.

충남 홍성군은 만해 한용운 생가가 있는 만큼 출생지로서의 콘텐츠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생가 인근에 만해 동상, 만해문학제 협관, 민족사박물관, 만해사당을 조성하여 만해 한용운의 출생일인 8월 29일에 맞추어 매년 다례제를 지낸다. 최근에는 생가지와 연계한 ‘한용운 생가지 역사공원’을 조성하여 야외 전시공연장, 생태습지, 체험휴게 시설, 조형물 등을 설치하였다. 이를 통해 만해 한용운의 삶과 정신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휴식과 교육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³¹⁾

특히 홍성군은 지역의 충절 인물과 예술인인 김좌진, 한용운, 최영, 성삼문, 이응노, 한성준을 주제로 매년 ‘홍성역사인물축제’를 개최하여 만해 백일장 대회, 뮤지컬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홍성역사인물축제는 ‘홍성내포사랑관축제’로서 내포 지역으로서의 홍성 지역을 알리는 주민화합형 축제로 시작되었다. 2014년부터는 홍성이 배출한 역사 인물을 핵심 주제로 한 지역개발형축제(문화관광축제)로서 ‘홍성역사인물축제’로 명칭 변경하였다.³²⁾ 2020년부터는 교육적 측면을 강조하여 어린이 큰잔치와 연계해 어린이날에 맞추어 개최되고 있다.³³⁾

강원도 인제군에는 한용운이 출가했던 백담사가 위치하고 있다. 한용운은 이곳에서 『조선불교유신론』, 『십현담주해』, 『님의 침묵』 등 주요

31) 홍성군, ‘한용운 생가지 역사공원 조성’ 순항, 『충청일보』 2022.12.4.
32) 손형진, 「지역개발형축제 관점에서 본 홍성역사인물축제가 지역사회발전에 미치는 영향 연구」, 배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pp.23-37. 홍성에서는 만해 한용운의 삶과 사상을 기리는 향토축제로서 만해제를 1995년부터 홍성문화원 주관으로 개최하였으나(제2회 만해제 애국-충절 이어 주민공지 높인다, 『조선일보』 1996.08.16일자), 2007년 내포사랑대축제로 통합되었다(『홍성·예산·명품축제』 육성, 『서울신문』, 2007.07.03.)
33) 홍주문화관광재단 홍성역사인물축제 소개 (https://hongju.or.kr/home/content.do?menu_cd=000116)

30) 「성북구, 만해 한용운 뮤지컬 ‘심우’ 공연」, 『서울경제』 2023.06.22.

저서들을 집필하였다. 인제군에서는 만해 한용운 선사의 자유, 평화, 평등, 생명존중 사상을 널리 선양하기 위하여 만해대상과 만해축전을 제정하였으며, 2003년에는 동국대학교 만해마을을 조성하였다.³⁴⁾

만해축전은 만해축전추진위원회 주축로 강원도, 인제군, 동국대학교, 조선일보, 만해사상실천선양회가 함께 만해대상, 유심작품상 시상, 전국 고교생 백일장, 서예대전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는 범국민적인 축제로 개최되고 있다. 또한 만해마을 건립을 통해 백담사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만해축전을 확장 시킬 수 있는 토대로 삼았다.³⁵⁾

서울시 중랑구는 한용운 묘소뿐만 아니라 애국지사과 문화예술인들의 묘소가 있는 망우역사문화공원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망우역사문화공원은 공동묘지로 처음 조성되었으나, 중랑망우공간을 추가로 조성하는 등 근현대인문학 보고이자 시민 힐링 공간으로 운영 중이다.

중랑구는 1992년 산책로를 중심으로 박인환, 방정환, 오세창, 한용운 등 14인의 연보 기록비를 건립하였다. 한용운 묘소는 애국지사 묘역에 포함되어 답사, 역사교실,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활용되고 있다.³⁶⁾ 특히 한용운 임적일에는 추모식을 매년 묘소에서 개최하여 만해 한용운의 삶과 업적을 기리고 있다.³⁷⁾

강원도 고성군은 만해 한용운이 만화 선사에게서 법호 만해(萬海)와 범명 용운(龍雲)을 받은 곳이자 『건봉사급건봉사탈사사적』을 간행한 건봉사가 위치한 곳이다. 건봉사 내에는 만해 한용운 기념관과 사명당의 승병기념관이 함께 건립되어 있다. 기념관 내에는 사명대사에 의한

승병 봉기처이자, 한용운의 조선독립의 서를 강령으로 삼아 해외 독립운동을 지원했던 만당의 시작지이자 호국사적지로서의 건봉사를 소개하고 있다.³⁸⁾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도 있다. 2016년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을 위한 지방정부 간 인적·문화적 교류를 통한 상호발전방안 모색과 자치단체별로 추진하는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의 전국적인 확산 분위기를 조성 등을 위하여 한용운과 관련된 자치단체 간에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행정협의회(이하 '만해 협의회')'³⁹⁾를 구성하였다. 만해 협의회에는 만해 한용운 행적에 따라 충남 홍성(출생)-강원도 인제(출가)-강원도 고성(수행) - 서울 성북구(입적)-서울 중랑구(묘소)의 5개 자치단체가 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다(2024년 3월 현재).⁴⁰⁾ 협의회 차원에서는 동국대학교 만해연구소와 함께 '만해로드'를 운영하였다. 만해로드는 한용운의 행적을 따라 전국의 한용운 관련 지역을 방문하는 탐방 프로그램이다. 강연, 체험, 템플스테이 등의 주제와 청소년, 대학생, 외국인 등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독립운동가문인 승려로서의 한용운을 만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⁴¹⁾

- 38) 건봉사 만해기념관 내 설명문 「건봉사와 만해 한용운」
- 39) 만해 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 40) 2016년 설립 당시에는 속초시(원적)와 서대문구(독립운동)가 소속되어 있었으나 2019년과 2022년에 각각 탈퇴하였고, 2023년에 새롭게 중랑구(묘소)가 가입하였다.
- 41) 만해로드는 2016년에는 대학생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용운의 행적과 관련된 전국의 유적지를 탐방하였고(「성북구 등 5개 지자체 13일까지 '2016 만해로드 대장정」, 「뉴스1」 2016.08.12.), 2017년에는 한용운의 평화사상과 도전정신의 의미를 알리려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였다(「만해로드 대장정」 외국인 유학생도 함께한다, 「아시아경제」 2017.07.31.일자). 2018년에는 대학생들과 함께 한용운의 불교사상과 생명사상을 체험하고자 템플스테이 형태로 운영하였다(「동국대 만해연구소, '만해로드대장정' 개최」, 「법보신문」

34) 만해마을 홈페이지 (https://manhae2003.dongguk.edu/manhae3_1_1)
 35) 이원규(선일), 「만해사상실천선양회 연구:백담사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2, pp.93-117, 동국대학교 만해축전 소개 홈페이지 (https://manhae2003.dongguk.edu/manhae1_5_2)
 36) 망우역사문화공원 홈페이지-공원소개 (https://manguripark.or.kr/sub/sub01_02.php)
 37) 「중랑구, 만해 한용운 선사 제79주기 추모식」, 『전국매일신문』 2023.6.30.

위와 같이 각 자치단체들은 각 지역이 지니는 만해 한용운과의 고유한 연관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만해 한용운의 자유·평화·항일정신과 문학사상을 선양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치단체 이외에 민간단체 주체로도 만해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민족불교를 수호하고 독립운동을 위해 설립되었던 (재)선학원은 만해 학술제, 만해 추모제 및 예술제, 청소년 문예공모전 등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⁴²⁾ (사)만해사상실천연합은 성북구와 함께 매년 만해 탄신일에 맞추어 탄신 기념식, 만해 학술 세미나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 ‘만해문학축전’을 시작으로 ‘만해통일문학축전(2016~2019, 2021)’, ‘만해평화문학축전(2022)’을 진행하여 만해 한용운의 정신을 고취하고자 하였다.⁴³⁾ (사)대한불교청년회는 1920년 6월 한용운을 위시로 청년, 승려들이 중심이 되어 ‘불교를 통한 민족의 각성, 조선의 독립’을 기치로 하여 조선불교청년회로 창립되었다. 이후 민족 각성과 독립운동 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다 1960년대 ‘대한불교청년회’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이어져 온다. 2023년 제43회 전국만해백일장을 개최하여 만해대상을 시상하였다.⁴⁴⁾ 만해기념관은 심우장 내 만해사상연구회와 만해기념관을 운영하다 남한산성 인근으로 옮겨 만해기념관 개관을 개관하여 만해학교, 전시, 강연, 문화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⁴⁵⁾

2018.08.09.). 2019년에는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여 한용운의 독립정신을 되돌아보기 위해 독립유적지를 탐방 하였다(「만해독립로드 대장정 출정식」, 「연합뉴스」 2019.08.29.).

- 42) 선학원 홈페이지
(http://www.seonhakwon.or.kr/bbs/zboard.php?id=seon_notic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95)
- 43) 만해사상실천연합 홈페이지 (manhaeunion.com)
- 44) 대한불교청년회 홈페이지
(http://www.kyba.org/bbs/content.php?co_id=101010)
- 45)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만해기념관은 전보삼 관장이 심우장에서 운영하던 것을 1998년 남한산성 인근으로 옮겨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만해와 관련 인물 콘텐츠를 활용한 전시, 강연,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표 2> 만해 한용운 관련 사업 추진현황

추진주체	관련 콘텐츠	세 부 내 용	
		추진사업	주요키워드
충남 홍성군	· 출생지	추모제 · 만해 추모 다례(8.29)	출생
		공간 조성 및 운영 · 만해 생가지 : 만해문학체험관, 시비 공원, 만해사 등 · 한용운 생가지 역사공원 : 야외전시공연장, 생태습지, 체험휴게시설, 조형물 조성 · 한용운 생가 무궁화동산 조성(예정)	출생, 항일
		축제·행사 · 역사인물축제 : 만해 백일장 대회, 뮤지컬 등 · 한용운 문학캠프	항일, 문학 교육
		문화유산 활용 · 생생 국가유산 사업 : 백년을 이어 온 한용운의 항일정신	문화유산, 항일
강원도 인제군	· 백담사에서 출가 · 『조선불교유신론』 탈고 · 오세암에서 「오도송」 남김 · 「실현담주해」, 「님의 침묵」 탈고	축제·행사 · 만해축전 : 만해대상, 유식작품상 시상, 전국고교생 백일장, 서예대전, 학술세미나 등 · 공간 조성 및 운영 · 만해마을 : 만해문학박물관, 문인의 집, 청소년 수련시설, 님의 침묵 광장 및 산책로 등 · 실야문학관 설립 예정(백담사)	문학, 평화·평등·생명 사상
		· 건봉사에서 최초의 선(禪) 수행 · 만화선사로부터 법명과 법호를 받음 · 만당이 조직되어 한용운의 조선독립의 서를 강령으로 삼음.	불교, 항일

운영 중이다(「남한산성 만해기념관 공식 블로그」).

추진주체	관련 콘텐츠	세 부 내 용	
		추진사업	주요키워드
	· 『건봉사급건봉사말사사적』 편찬		
서울시 중랑구	· 망우리 묘소에 안장	추모제 · 만해 추모식(6.29.) 공간 조성 및 운영 · 망우역사문화공원 : 연보기록비, 묘역 답사, 역사교실, 전시 · 중랑망우공간, 만해 한용운 흉상 제작.	입적 향일, 문학
자치단체 공동사업 (만해협의회)	· 충남 홍성(출생)-강원도 인제(출가)-강원도 고성(수행)-서울 성북구(입적)-서울 중랑구(묘소)	축제 · 행사 · 2016년~2019년 만해로드 (동국대 만해연구소) · 2016년~2019년 정기총회 · 2018년 3.1운동 99주년 기념식 · 2019년 일본수출규제 규탄을 위한 성명서 발표	향일, 문학, 불교, 지역활성화
(계) 선학원	· 민족불교 수호와 독립운동을 위해 ‘조선불교 선학원’ 기공	추모제 · 만해 추모제(6.29.) 축제 · 행사 · 만해 예술제, 만해 학술제, 청소년 문예공모전	입적 불교, 문학, 평화 · 평등 사상
(사)만해 사상실천 연합	· 한용운의 민족 자주 정신과 자유, 평화, 생명사상을 계승하여 민족의 평화통일과 한국문학의 발전, 도덕적 정의 사회 실현을 위해 설립	축제 · 행사 · 만해평화문학축전(8.29) : 기념식, 만해사상실천 심포지움, 만해문학향연	불교, 문학, 자유 · 평화 · 평등사상
대한불교 청년회	· 한용운을 위시로 청년, 승려들이 중심이 되어 ‘조선불교청년회’로 창립	축제 · 행사 · 전국만해백일장 : 만해대상 시상	불교, 문학, 평화 · 평등 사상
만해 기념관	· 만해사상연구회 발족 및 『한용운 사상연구』에 발간. · 심우장에서 만해사상	공간 조성 및 운영 · 만해학교, 전시, 강좌, 체험, 문화행사	불교, 문학, 향일

추진주체	관련 콘텐츠	세 부 내 용	
		추진사업	주요키워드
	연구회와 만해기념관 운영, 남한산성으로 이전		

이를 토대로 성북구의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의 문제점을 도출하겠

다. 첫째, 심우장이 한용운의 민족정신, 자유·평화·평등사상 등을 지속적으로 계승하고 확산시키는 공간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의 선양사업이 특정 단체 주관의 사업들을 지원하거나, 여타 기관에서 선정된 공모사업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사업들이 단절적이고 일시적이라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모 다례제 및 예술제, 만해평화문학축전은 주관단체 별로 각각의 계획이 수립되어 진행된다. 그리고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진행되었던 ‘생생문화재 사업’은 2020년도에 진행되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비대면 체험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되었고 이듬해에는 공모에 선정되지 않아 1회로 마무리되었다. ‘고택·종가집 활용사업은 2022년부터 진행 중이나 2024년 이후 주관단체도 변경되었다. 2022년부터 심우장 인근의 만해 산책공원에서 진행되는 독립운동 콘텐츠 활용 프로그램 역시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성북동 야행’과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공모사업 선정시에만 진행될 수 있는 사업들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또한, 성북구는 입적 장소로서 심우장의 의미를 강조하여 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용운 콘텐츠를 보유한 타 자치단체와의 사업 중복과 차별화 문제는 피할 수 없었다. 성북구는 한용운의 입적일(6.29)에 맞추어 입적 장소인 심우장에서 추모제를 진행하고 있으나 묘소가 있는 중랑구에서도 같은 날 추모제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심우장에서는 『님의 침묵』 등을 중심으로 한 문학 체험 프로그램들도 진행

중이다. 그러나 『님의 침묵』이 발간된 백담사가 위치한 인제군에 비해 심우장을 중심으로 한 한용운의 문학읽기의 차별성과 정당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성북구는 만해 협의회 구성원으로서 출생-출가-수행-독립운동-업적 등 한용운의 생애와 행적에 따라 각 자치단체와 한용운의 연관성을 알리는 만해로드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협의회 운영이 중단된 상태로 향후 만해 협의회 차원에서의 선양사업 추진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성북구에서의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의 방향성 설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된다. 전체적인 방향성을 설정하고 그 안에서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심우장을 한용운의 사상을 계승하고 확산시키는 공간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성북 고유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타 자치단체와의 차별성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한용운 사상의 실천적 공간으로서 심우장의 장소성 약화 문제이다. 심우장은 공간적 한계로 수용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 참여 인원이 소수로 진행되는 한계가 있다. 심우장 입구의 만해 산책 공원과 심우장이 위치한 성북동 일대로 범위를 넓혀서 진행하고 있지만 야외이고 거주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대규모 혹은 야간 행사를 진행하는 것에도 제약이 따른다. 이를 극복하고자 '생생문화재 활용사업'을 통해 비대면으로 영상 전시와 체험을 진행하였으나 심우장의 의의를 전달하기에 효과적이지 않았다. 이에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추진시 주민과의 소통 창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현재 성북구의 사업들은 주관 단체에 따라 사업이 계획되고 진행되는 상황이라 사업 기획과 시행·종료시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창구나 체계가 없는 상황이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는 문화재청 공모사업 진행시 참여자에 대한 사업 만족도

설문조사 정도이다. 심우장에서 대중과 소통하고자 했던 한용운의 정신과 맞는 주민과 함께하는 선양사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IV.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추진방안

만해 한용운의 사상을 계승하고 가치를 확산하는 기념 공간으로서의 심우장 가치 창출을 위한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추진방안은 아래와 같다.

첫째, 중·장기적인 계획수립을 통해 심우장의 역사성과 가치를 계승할 수 있는 운영 방향과 관련 단계 간 협력 방안, 조직적·제도적 장치 수립을 모색하여야 한다.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을 위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⁴⁶⁾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강화되고 역사·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문화유산으로서 심우장 보존 뿐만 아니라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에 대한 장기적 계획도 함께 수립하여야 한다.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진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성북구 관내에 위치하여 활동하는 성북문화원, 대학교, 연구기관과 성북문화재단, 무형유산, 예술단체, 문화예술가 등뿐만 아니라 주민들과 연계된 추진체계 및 역할이 정립되어야 한다.

성북구는 자치단체로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정비 및 정책 방향 수립, 예산지원을 담당하고, 연구기관으로서 성북문화원, 대학교, 관련 연구소 등은 콘텐츠 발굴 및 고증, 추진기관으로서 성북문화원, 성북문화재단, 대학교 및 관내 예술단체 및 예술가들과 연계한 사업 추진의 역할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성북문화재단은 심우장 콘텐츠를 활용한 축제, 공연 및 문화 예술 관련 사업 추진시 성북문화재단-문화예술인

46) 문화재청,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기본계획(2022~2026)」, 2022.

과 연계하는 창구로서 기능하고⁴⁷⁾ 성북문화원은 성북문화 예술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어 역사적 전문성이 필요한 강연, 답사, 전통 공연 분야 등의 콘텐츠 활용 사업 추진시 이와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⁴⁸⁾ 또한 문화 예술 분야나 관광 등의 분야에서 콘텐츠 활용 사업 기획 단계에서 자문·고종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다양한 원천콘텐츠 제공과 역사 왜곡 등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성북구 관내 대학들은 연구기관이자 교육기관으로서 전공 분야에 따른 콘텐츠 활용 사업시 연계할 방안이 풍부하다.⁴⁹⁾ 관내 대학들은 이미 캠퍼스타운 사업, 학술연구 영역 등 성북구와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전담 조직 구성시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들이 더 효과적으로 운영 및 관리될 수 있으므로⁵⁰⁾ 구청 내 대학과 협업을 위한 총괄 부서를 지정하여 대학과의 소통 창구로 삼을 필요성이 있다.

둘째, 심우장의 가치 계승과 지속 가능한 심우장 콘텐츠 발굴과 인력 양성이다. 관내 대학교에는 역사·국문학 등의 다양한 분야의 학과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각 대학 내 한국사연구소, 민족문화연구원, 문화 예술 콘텐츠 연구소 등의 연구기관과 박물관들도 함께 운영되고 있어 원천 콘텐츠 발굴을 위한 인적자원이 풍부하다.⁵¹⁾ 또한 예술, 미술, 전통문화 등 예술 분야의 학과들도 다수 운영되어 심우장 원천콘텐츠를 공연, 조형, 전시 등으로 문화 콘텐츠화할 수 있는 연계성도 풍부하다.

이런 풍부한 연구 인력을 기반으로 지역인재 양성까지 힘쓸 수 있다. 지역의 자원을 주제로 한 수업은 지역에 애착을 두게 하고 각 지역의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가와 소통할 기회가 된다. 이는 다양하고 체계적인 지역 교육 프로그램이 도움이 된다.⁵²⁾ 대학에서의 교양과목은 전공과 학문 심화 학습을 위한 기초교육 과정으로 개설되고 있으나, 최근 대학과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중요시되면서 관련 과목들도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다.⁵³⁾ 대학 수업을 통하여 직접 과거를 마주하고 내가 사는 지역에 있는 문화유산과 인물을 배우는 작업을 통해 자신만의 역사상을 구성해볼 기회가 마련된다. 특히, 한용운은 독립운동가이자 시인, 승려 등 많은 분야에서 활동한 인물이기 때문에 사학과, 철학과, 국문학과, 불교학과, 문화콘텐츠학과 등 여러 전공 분야에서 활용될 확장성이 있다. 교양 분야에서도 심우장에서 자신의 신념을 꺾지 않고 실천했던 한용운을 통해 앞으로 삶에 대한 자세와 사상을 정립해 볼 수 있다. 또

47) 성북문화재단은 ‘공유원탁성북회의’를 통해 지역과의 만남, 예술가들의 소통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공연 및 시각예술 지형이 형성되기 위한 성북구 내의 젊은 예술가들의 교류를 오랜 기간 추진하여 민간 거버넌스가 이미 잘 구축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거버넌스와 사업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성북문화재단 홈페이지 (<https://www.sbculture.or.kr/culture/main/contents.do?menuNo=500015>)

48) 성북문화원은 그간 ‘성북학연구팀’ 신설과 ‘성북마을아카이브’ 운영 등 성북의 역사문화자원 발굴을 위한 꾸준한 사업 추진으로 연구자, 박물관·미술관 및 연구기관과의 연계가 구축되어 있다. 또한 ‘성북문화예술네트워크’를 통해 무형문화재 및 전통문화예술인·단체 등과 연대가 정립되어 있다(「서울 성북구 문화예술인 500여명, 성북문화예술네트워크 결성해 창립기념식 가져」, 『뉴스퀘스트』 2022.5.10.).

49) 성북구에는 국민대학교, 고려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서경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성대학교 등 8개의 대학교가 위치하고 있다.

50) 김태현, 이태희, 윤기학, 『서울의 대학, 지역사회 협력실태와 증진방안』, 서울연구원, 2015, pp.132-133.

51) 성북구 관내 대학생 수는 약 10만명으로 이는 성북구 인구의 1/4에 해당한다(이원재, 『문화도시 성북의 중장기 계획과 추진전략』, 『문화도시 성북을 위한 거버넌스 포럼 2』 발표자료, 2021, p.10).

52) 김용남, 「대학 교양과목을 통한 지역학에 대한 수강생들의 인식」, 『교양교육연구』 14, 2020, p.137.

53) 한성대 크리에이티브 인문학부 전공 <지역학과 콘텐츠 개발 종합설계>, <지역문화와 콘텐츠-캡스톤디자인>, 성신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사학과 교양 <문학예술기행-걸어서 성북동 속으로>으로 성북 지역 연계 수업이 진행된 바 있다. 특히 성신여자대학교는 국어국문학과와 사학과 두 학과에서 역사뿐만 아니라 문학, 미술과 같은 예술 분야까지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전공에서 지역사회 기여형 교과목을 개발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한 바 있다(성신여자대학교 교육혁신원, 『지역사회 기여형 교양 교과목 개발연구 결과보고서』, 2023.).

한 지역 콘텐츠를 활용하여 진행한 경험에서 학생들의 진로 결정이나 취업에 영향을 미치며 향후 지역 내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인력 자원화도 가능하다.

셋째,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을 추진하는 자치단체 및 기관·단체들과 각 사업을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학술회의, 포럼 등과 같은 논의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는 각 자치단체 간의 사업을 공유하여 사업 중복문제를 피할 수 있고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도 도모할 수 있다.

2026년은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 해에는 각 자치단체나 기관·단체에서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 기념행사나 사업들이 개최될 것이 예상된다. 공동 학술회의와 포럼을 통해 『님의 침묵』의 의의와 그 속에 담긴 조국독립과 민중구제, 자유·평화사상을 돌아보고, 『님의 침묵』 국가유산 등록 추진⁵⁴⁾ 등과 같은 공동협력 사업을 논의하여야 한다.

넷째, 한용운의 심우장 거주 시기 삶을 재조명하는 콘텐츠 활용 사업 추진이다. 심우장에서의 한용운의 활동을 폭넓게 콘텐츠로 활용함으로써 심우장의 장소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심우장 거주 시기 발표한 문학의 의의를 재조명하고 한용운과 교류

54) 문화재청에서는 「근대문화유산 문화분야 목록화 조사용역(2009년)」 실시 후 근대문화 분야 유물 중 문학적·사료적 가치가 큰 것을 문화재로 등록하고자 2010년에 『님의 침묵』 3점을 검토한 바 있다. 하지만 발간 당시 200부 한정판으로 제작된 『님의 침묵』은 1920년대에 간행된 책으로는 보기가 드물게 표지의 장정이 튼튼하게 제본되었기 때문에 다수 현존할 가능성이 크고, 보존 상태 또한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어 『님의 침묵』 소장처에 대한 전수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3점만을 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을 유예한 바 있다(문화재청 『2010년도 문화재위원회(근대문화재분과) 제4차 회의록』, 2010, pp.67-68). 2016년 문학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문학 관련 활용 사업과 문학관 건립이 다수 추진되며 문학 및 문학 자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만해 한용운 관련 자치단체와 『님의 침묵』 소장기관들이 함께 국가 유산 등록을 제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하였던 민족지사, 문화예술인 등 관계 인물들에 관한 강연과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활용 콘텐츠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심우장을 중심으로 성북동, 북촌 일대 등 한용운 관련 공간을 연결하는 탐방코스를 운영하고,⁵⁵⁾ 탐방 현장에서 언제나 한용운에 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만해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⁵⁶⁾

다섯째, 심우장의 역사성과 가치를 알릴 수 있는 거점 공간으로서의 만해기념관과 역사공원 조성이다. 지역에 문화기반시설을 갖추는 일은 새로운 문화 행위의 등장과 양적, 질적인 성장을 촉진 시키며 지역문화의 센터 역할을 하므로 기반 시설 조성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⁵⁷⁾

현재 한용운을 기념하는 시설은 홍성의 만해문화체험관, 인제군의 만해마을 내 만해문학박물관, 경기도 광주시 만해기념관, 강원도 고성군의 건봉사 내 만해 한용운 기념관이 대표적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홍성, 인제, 고성군의 경우 만해 한용운 생애에 따라 항일정신, 문학사상 등을 알리는 동시에 각 자치단체와 한용운의 관계를 중심으로 전시를 구성하였다. 또한 경기도 광주시 만해기념관에서는 만해 한용운 전 생애를 종합적으로 전시하며, 한용운의 작품뿐만 아니라 현대 콘텐츠와

55) 한용운이 심우장에 정착한 것은 민족운동의 중심 공간인 북촌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고, 참신 수행이 가능한 조용한 공간이기 때문이었다(배경식, 앞의 논문, pp.228-233). 심우장에 자리 잡기 전 북촌, 그리고 서울 지역까지 확대하여 탐방코스를 운영한다면, 심우장에 정착한 한용운 삶의 의미를 좀 더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56) 대구광역시시의 경우, 대구 지역의 역사 문화자원에 증강현실(AR), 미디어 파사드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쌍방향 체험콘텐츠를 도입한 “AR로 만나는 대구 근대골목”을 운영하여 관광객에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있다(대구트립로드 홈페이지 https://tour.daegu.go.kr/index.do?menu_id=00004251).

57) 이원태,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에 따른 지역문화정책의 방향」, 『문화정책논총』 제7권, 1995, pp.149-150. 이원태는 지역의 문화 기반 시설은 도서관, 박물관 등과 같은 문화 공간 뿐만 아니라, 문화유산, 공원과 광장, 자연경관과 환경 등 거의 모든 소재들이 문화 기반 시설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연계한 작품들을 제작하여 만해 한용운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문화유산 발굴에 힘쓰고 있다.⁵⁸⁾

심우장 인근에 만해기념관을 건립하여, 전시 공간은 서울 권역에서의 한용운의 활동, 특히 심우장에서의 민족지사들과의 교류와 지조, 이 시기 문학 활동의 의의, 대중과 함께하려 했던 한용운의 사상을 전달하는 공간으로 기능해야 한다. 또한 만해 한용운의 심우장에서의 활동을 교육, 체험 등으로 배울 수 있는 거점 공간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협소하고 실내 공간이 부족한 심우장을 보완하여 축제·행사시 연계 활용할 수 있다.

심우장 주변 지역은 역사공원으로서 만해 한용운의 사상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자 주민들의 휴식처로서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⁵⁹⁾ 역사공원에는 조형물이나 시비 등을 설치하여 한용운의 독립 정신과 자유·평등·평화사상을 보여주고, 예술제와 공연을 개최하여 통해 문화·예술로 한용운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주민들의 참여 부분에 관한 부분으로 문화콘텐츠 사업 기획·실행 단계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창구를 마련하여야 한다. 지역 구성원이 지역문화콘텐츠 기획, 제작, 소비의 주체가 되면 특별한 매개 없이 주민과 지역, 그리고 주민과 콘텐츠를 연결하고 내재화할 수 있다.⁶⁰⁾ 계획수립 단계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요구를 파악하고, 종료 후에도 참여·기획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문을 통해 주민들의 목소리

를 듣는 체계가 정립되어야 한다.

주민들의 참여 창구는 다양화할 수 있다. 심우장 일대가 재개발되어 주변 환경이 변화하기 전 심우장 주변의 환경과 주택들을 기록하고,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심우장에 대한 기억과 의미를 주민 구술인터뷰를 통해 아카이빙하여 심우장의 문화콘텐츠로 삼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심우장을 성북동이라는 공간 안에서 더 입체적으로 서술할 수 있고, 한용운이 입적했던 1944년에서 시간적으로 단절되는 것이 아닌 현재 주민의 삶과 이어지는 현재적 의미를 도출할 수 있다.

지역주민에게 심우장과 만해 한용운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 스스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지역의 콘텐츠는 지역주민들이 공유하고 향유할 때, 그 학문적 가치가 돋보이는 지역의 문화적 자원이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기초자료이다.⁶¹⁾ 지역주민들이 성북의 역사콘텐츠를 살펴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심우장 콘텐츠에 집중하여 주민에게 제공하는 '심우장 아카이브'가 설립되어야 할 것이다. 공간이나 예산의 제약이 있어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성북마을아카이브'⁶²⁾ 혹은 향후 만해기념관 건립시 구축될 시스템과 연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58)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만해기념관은 심우장에서 운영되다가, 1998년 남한산성 인근으로 옮겨져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만해학교, 만해한용운과 관련 인물 콘텐츠를 활용한 전시, 강연, 문화행사, 만해 한용운 아카이브 구축 등을 진행 중이다.

59) 역사공원은 2005년 제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도시공원법)」에 의해 조성되는 도시공원 가운데 주제공원의 하나로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이다(「도시공원법」 제15조1항3).

60) 정혜경, 「지역문화콘텐츠의 정책 지향과 향유 지속 방안」, 『인문콘텐츠』 제24호, 2019, p.189.

61)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정체성을 공유하고 지역학을 향유 함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되며, 하위 단계에서 지역학을 기초로 한 아래로부터의 고유한 지역문화진흥이 나타나야 한다는 연구가 있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학 활성화 방안 연구」, 2014, p153).

62) 성북문화원은 2019년부터 성북마을아카이브(<https://archive.sb.go.kr>)를 통해 성북의 역사자원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성북마을아카이브는 성북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만해 한용운 혹은 심우장의 콘텐츠에 집중되어 있지는 않다.

V. 결론

지금까지 성북구의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현황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만해 한용운 정신의 계승 공간이자 가치를 확산시키는 공간으로서 심우장을 중심으로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의 추진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그동안의 성북구에서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으로 명명되어 추진되어 온 사업들은 만해 협의회, 기념식, 축전, 문화유산 활용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하게 추진됐다. 독립운동, 문학, 불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이 활발히 진행하였으나, 성북구만의 콘텐츠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심우장은 이곳에 정착하기 전 한용운이 꾸준히 주장했던 독립, 자유, 평등, 평화 사상이 이어지는 공간이었다. 심우장에서 새로이 발표된 소설이나 대중과 소통했던 에피소드와 특히 독립운동에 대한 탄압이 심했던 1930년대의 일제강점기에 변절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독립운동을 하지 않고 결혼을 통해 처음으로 거처를 삼은 것은 대중 속에서 살아가고자 했던 한용운 신념의 실천으로 볼 수 있었다. 이러한 한용운의 사상을 계승하고 실천하는 공간으로서 심우장을 중심으로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의 방안을 중장기 계획수립, 추진체계 구성, 콘텐츠 발굴 및 인력양성, 문화콘텐츠 연계 사업 추진 등으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다만 성북구라는 자치단체로서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의 추진 방안을 서술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 다양한 민간 주체와의 연계 문제나 문화콘텐츠 산업 활성화 부분은 부족하여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며, 방향성 제시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 계획수립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다.

참고문헌

- 목부(牧夫), 『尋牛莊說』, 『불교』 신제4집, 1937.6.1.
 문화재청, 『2010년도 문화재위원회(근대문화재분과) 제4차 회의록』, 2010.
 문화재청,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기본계획(2022~2026)』, 2022.
 성신여자대학교 교육혁신원, 『지역사회 기여형 교양 교과목 개발연구 결과 보고서』, 2023.
 서울특별시 성북구, 『만해 한용운 심우장 사적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 2018.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화 활성화 방안 연구』, 2014.
 강민희, 『장소성 형성을 위한 역사인물의 활용방안』, 『동아인문학』 제46집, 2019.
 김광석, 『심우장의 어제와 오늘』, 『전자불전』 제21집, 2019.
 김순석, 『세계 평화를 지향한 한용운의 독립운동-『조선불교유신론』과 『조선독립의 서』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제96호, 2022.
 김용남, 『대학 교양과목을 통한 지역학에 대한 수강생들의 인식』, 『교양교육연구』 14, 2020.
 김익균, 『만해 한용운이라는 기념비』, 『大覺思想』 제25집, 2014.
 김진형, 『지방자치단체 문화콘텐츠의 개념과 OSMU 가치실현 방안』, 『비교민속학』 제44집, 2011.
 김태현, 이태희, 윤기학, 『서울의 대학, 지역사회 협력실태와 증진방안』, 서울연구원, 2015.
 배경식, 『1930년대의 문화지형과 한용운의 삶』, 『불교문화연구』 3,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불교문화예술연구소, 2014.
 백원기, 『심우장(尋牛莊)의 정체성 확립과 보존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 『東方論集』 제2집, 2008.
 ———, 『일제 강점기 후반기 문학계 동향과 후반기 만해 문학사상』, 『선문화연구』 17, 2014.
 ———, 『만해 선사의 시문학과 삶의 지향점』, 『제5회 심우장 만해통일문학축전 자료집』, 2019.
 손형진, 『지역개발형축제 관점에서 본 흥성역사인물축제가 지역사회발전에

미치는 영향 연구], 배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이상현 · 이종오, 「지역문화콘텐츠로서 역사문화자원의 활용사례 연구-군산 근대문화유산거리와 전주한옥마을을 중심으로-」,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학술대회』, 2018.

이영준 · 김진영, 「역사문화콘텐츠로서 세종대왕을 활용한 지역정체성 확립: 경기도 여주시를 중심으로」, 『글로벌문화콘텐츠』 제51호, 2022.

이원규(선일), 「만해사상실천선양회 연구 : 백담사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2

이원재, 「문화도시 성북의 중장기 계획과 추진전략」, 『문화도시 성북을 위한 거버넌스 포럼 2』 발표자료, 2021.

이원태,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에 따른 지역문화정책의 방향」, 『문화정책논총』 제7권, 1995.

이혜숙, 「한용운 소설의 인물과 근대사상 형상화 양상-장편 『흑풍(黑風)』과 『박명(薄命)』을 중심으로」, 『돈암어문학』 제26집, 2013.

이창경, 「만해 선양 문화콘텐츠의 활용방안」, 『출판잡지연구』 29, 2021.

장영우, 「심우장 시절의 만해 문학」, 『한국문학연구』 47, 2014.

전보삼, 「만해와 무산의 『심우도』 비교연구」, 『시와세계』 51, 2015.

전한성, 「문화적 기억의 공간과 장소, 심우장(尋牛莊)」, 『어문논집』 88, 2019.

정혜경, 「지역문화콘텐츠의 정책 지향과 향후 지속 방안」, 『인문콘텐츠』 제24호, 2019.

최종진, 「萬海 韓龍雲의 晩年과 尋牛莊」, 『선문화연구』 32집, 2022.

남한산성 만해기념관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jbs4106>

대구투립로드 홈페이지 <https://tour.daegu.go.kr>

대한불교청년회 홈페이지 <http://www.kyba.or.kr>

만해사상실천연합 홈페이지 manhaeunion.com

만해축전 홈페이지 <https://manhae2003.dongguk.edu>

망우역사문화공원 홈페이지 <https://manguripark.or.kr>

선학원 홈페이지 <http://www.seonhakwon.or.kr>

성북마을아카이브 홈페이지 <https://archive.sb.go.kr>

성북문화재단 홈페이지 <https://www.sbculture.or.kr>

홍주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 <https://hongju.or.kr>

Abstract

Current Status and Promotion Plan of Enhancement Project of Manhae
Han Yong-un : Focusing on Simujang

Kim, Ji-eun
(Curator, Seongsbuk-gu Office)

Since the start of the local autonomous system in the 1990s, each local government has made efforts to establish regional identity by discovering local historical figures and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and to revitalize the local economy through this. Seongsbuk-gu makes efforts to establish regional identity, enhance resident's pride, and revitalize the economy by promoting festivals, literary celebration, ceremony, visits, and cultural heritage utilization project as a part of "Enhancement Project of Manhae Hanyong-un" which utilizes Manhae Hanyong-un and Simujang, major historical and cultural contents of Seongsbuk-gu.

However, there were problems such as lack of future direction of the project, overlap of projects with other local governments, lack of unique contents of Seongsbuk, and changes in the surrounding areas of Simujang, so the need to reexamine the Enhancement Project of Han Yong-un centered on Han Yong-un and Simujang was raised.

This article examines the promotion of Simujang as a space to inherit and spread Han Yong-un's thoughts based on the understanding that it is a space for the practice of his spirit where his thoughts and spirit are concentrated.

To this end, this article derives problems from analyzing the status

of Enhancement Project of Manhae Han Yong-un and other local government's project. Based on that analyzing, the plan for the Enhancement Project of Manhae Han Yong-un is proposed by dividing it into mid- to long-term plan establishment, establishment of a promotion system, discovering contents and training human resources, and promotion of projects linked to cultural contents.

This article expects that Manhae Han Yong-un Simujang functions as a space to inherit and practice his thoughts through this research.

Key words

Manhae, Han Yong-un, Simujang, Enhancement Project, Seongbuk-gu, Local Government, Cultural Contents

논문투고일 : '24. 4. 30. 심사완료일 : '24. 5. 22. 게재확정일 : '24. 5. 22.